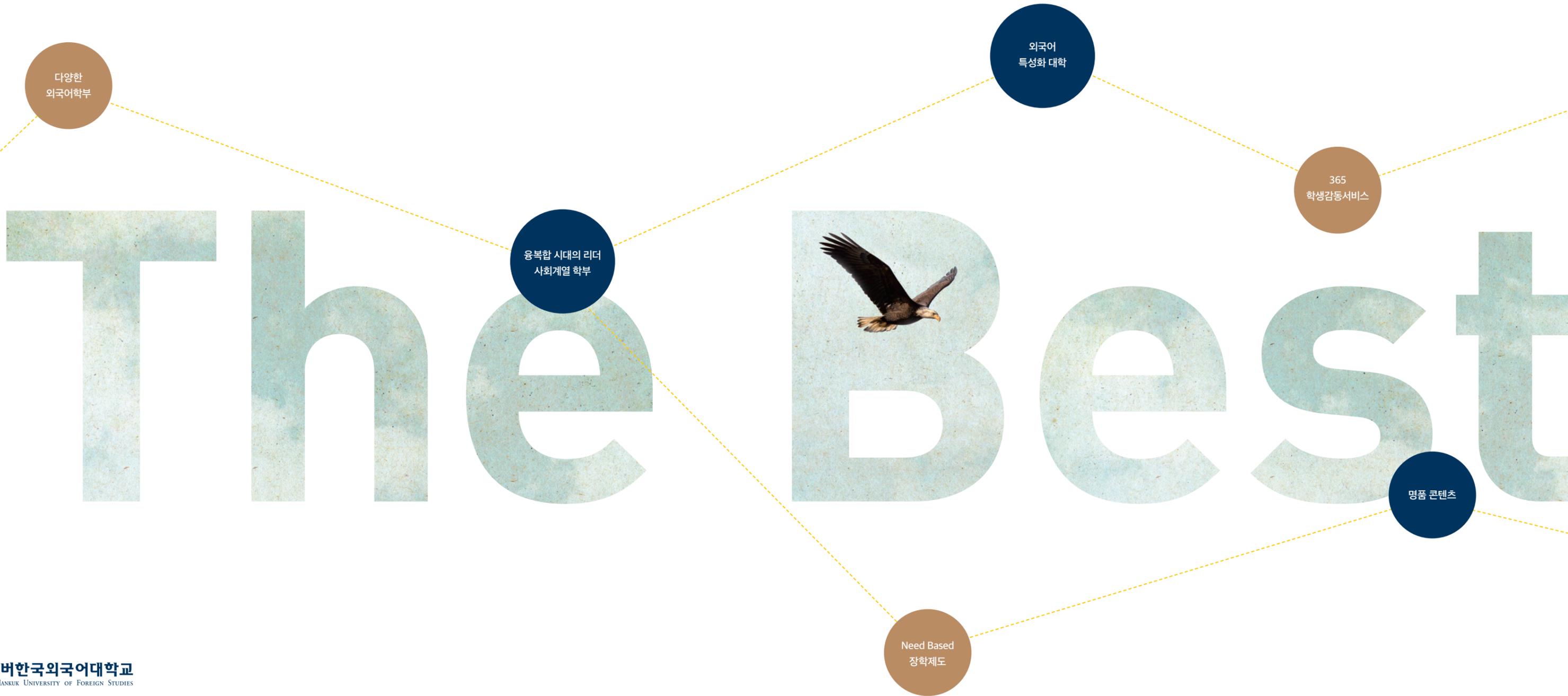


Cy외대





더 큰 이름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소통의 시대'에 사이버한국외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Cy외대>를 창간한 지 반년입니다. <Cy외대>를 통해 우리 대학이 품은 뜻을 공유하고 도약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오늘, 사이버대학을 둘러싼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사이버한국외대가 이루어낸 성과를 대내외로 전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추운 겨울, 윤기를 머금은 새파란 이파리와 그윽한 붉은 빛의 꽃을 피우는 동백(冬柏)이 더 대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에서도 높게 성장하는 사이버한국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간 사이버한국외대는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양보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2014학년도 동기 대비 입학생이 23% 증가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한국외대는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님들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분들, 일과 학업을 병행함에도 미래를 향해 온 힘을 다하는 학생들, 학교의 얼굴이 되어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들과 함께 더 큰 이름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것입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크게 약동할 것입니다. 도약과 성취를 위해 활기차게 움직이는 우리 대학을 마음 모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 총장 김인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 02 President's Message
더 큰 이름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 06 Cy외대, 날갯짓하다
입학생 증가로 증명된 Cy외대 혁신
- 10 Cy외대, 날갯짓하다
열정으로 뭉친 Cy외대
- 16 Cy외대, 높게 날다 | No.1 Cy외대
사이버대학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
Cy외대 명품 콘텐츠 학생들의 꿈을 키운다
외국어와 함께 해외 문화를 배운다
- 20 Cy외대, 높이 나는 사람들
스페인어로 그려낸 또 다른 미래 | 스페인어학부 조은영
- 22 오프라인에서 만난 Cy외대인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 일본어학부 졸업생 최병수
- 24 Cy외대, 높게 날다 | Only 1 Cy외대
장학금은 Cy외대 학생의 권리 Need Based 장학제도
사이버한국외대의 '진심' 365 학생감동서비스
글로벌 인재 산실,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Cy외대
- 28 Cy외대 Column
Cy외대 변혁의 중심 조장연 부총장, 직업관을 이야기하다
Profession & Calling
- 30 Cy외대 신설학부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Cy외대

2015
SPR·SUM
Vol. 2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발행일 2015년 6월 24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조장연
발행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협력처
tel. 02-2173-2580
제작협력 그루인



COVER STORY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힘찬 날갯짓으로
날아올라 멋진 비행을 시작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비행은 학생들이
꿈을 넓고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향할 것이다.

CY외대

날갯짓하다

사이버한국외대의 날갯짓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고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응원할 것입니다.

I could be spending all this time learning to 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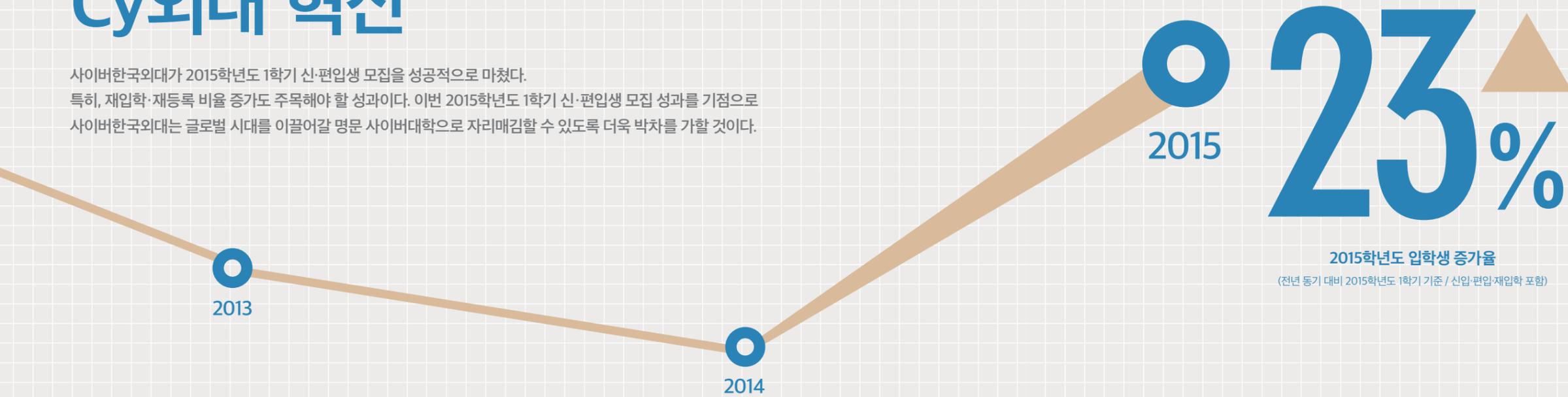
There's so much to learn!

Richard Bach, Jonathan Livingston Seagull

입학생 증가로 증명된 Cy외대 혁신

사이버한국외대가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재입학·재등록 비율 증가도 주목해야 할 성과이다. 이번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성과를 기점으로 사이버한국외대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명문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Cy외대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증가

201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 결과 입학생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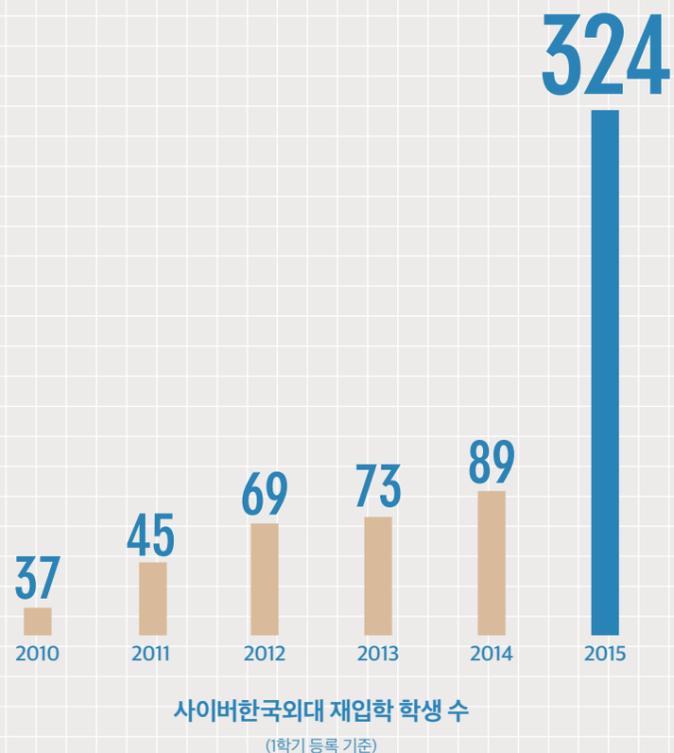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지원자·등록자 수가 3년 만인 2015학년도 1학기에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는 'The Best Cy외대'를 목표로 콘텐츠 품질 개선, 학생 서비스 확대, 획기적인 장학제도 도입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른 사이버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학생감동서비스로 입시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의 발걸음으로 이룩한 재입학 증가

201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전년 대비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은 재입학 학생 수다. 2014학년도 1학기 89명에서 2015학년도 1학기 324명으로 재입학생이 급증한 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테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진심이 담긴 찾아가는 서비스와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학생들의 고충을 헤아린 학사제도의 변경이 바로 그것. 특히, 9학점에서 6학점으로 낮춘 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 조정, 집중 학기제 도입, 성적 중심에서 탈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Need Based 장학제도 마련은 학생들의 부담을 한결 가볍게 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동행과 학생 중심의 제도 변화가 중도 하차했던 학생들의 마음까지 돌리게 한 것이다.



재등록률로 확인된 365 학생감동서비스 효과

2015학년도 1학기 사이버한국외대의 재학생 재등록률은 82.8%로 2014학년도 동기 대비 5.7% 수직 상승했다. 특히, 이번 학기 재등록률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등록률의 평균 증감폭이 1.48%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변화다. 최근 사이버한국외대의 콘텐츠 업그레이드, 365 학생감동서비스 등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졸업생이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자 다시 지원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에만 29명의 졸업 동문이 사이버한국외대로 다시 돌아왔다. 사이버한국외대에서 공부해 본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학생 만족도 상승을 보여주는 2015학년도 재등록률 변화
(전년 동기 대비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 2006~2014년 재등록률 평균 증감폭 1.48%)

전 구성원이 빚어내는 감동 그 이상의 하모니



김수진 교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학생지원처장

감동의 2015년 입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열망이 빚어낸 최상의 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를 우리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들은 살을 에는 강추위조차 녹여 버리는 뜨거운 열기를 경험했습니다. 교원과 직원, 재학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빚어낸 것이지요. 우리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와도 같아서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어우러질 때,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천상의 하모니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지난해를 입시를 통해 체험한 것이고요. 교원들은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며, 직원들은 밤낮없는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교육과 행정 서비스의 지원에 힘입어 재학생들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경험했으며, 그 만족감을 주변의 많은 지인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구성원 개개인의 열정과 헌신이아말로 최상의 입시 실적이라는 뿌듯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15 새내기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머지 않아 각자의 소리를 가다듬어 조화로운 선율 속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믿어 봅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약간의 두려움과 지대한 설렘을 동반하게 됩니다. 새롭게 사이버한국외대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은 처음의 각오와 열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날개를 활짝 펼쳐 힘차게 비상하십시오. 우리가 발판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 언덕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15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달콤한 경험은 잇따르는 경험을 요구하고 유발합니다. 전 구성원이 빚어낸 뜨거운 열기와 화합의 하모니를 맞본 사람은 다시 한 번 그 하모니

속으로 빠져들기를 원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또 한 번의 화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2016년 입시는 기다려지는 도전입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리는 저마다 현을 가다듬고, 건반을 조율할 것입니다. 감동 그 이상의 하모니를 완성하기 위해.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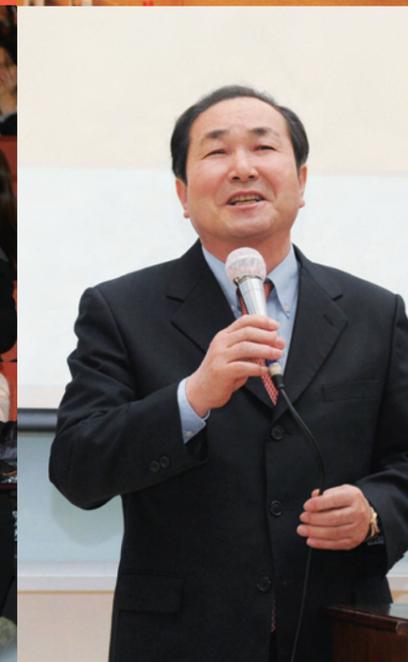
열정으로 뭉친 Cy외대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대학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의 학생 호응도는 언제나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진행된 교내 행사에서는 추가 신청을 받고 조기 마감될 해야 할 만큼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띄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진심과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출발!



음악이 흐르는 늦가을 축제 2014 쿠페스타

사이버한국외대가 가을 축제 '배우 Go! 어울리 Go! 즐기 Go!' 2014 쿠페스타(CUFESTA)를 2014년 11월 15일에 개최했다. 이미메이킹 특강, CUF에게 바란다,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진행된 2014 쿠페스타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조장연 사이버한국외대 부총장의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예상했던 인원보다 무려 세 배 이상의 학생이 참석, 명실상부한 Cy외대 가을 축제 한마당이 되었다.



<나는 오늘도 번역가를 꿈꾼다> 번역가 릴레이 특강

사이버한국외대는 2015년 봄,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최고 번역가들의 릴레이 특강 <나는 오늘도 번역가를 꿈꾼다>를 진행했다. 터키 문학 번역의 일인자인 이난야 계명대 교수, (주)시공사 문학팀 정은미 팀장, 한국문학번역원 고영일 본부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특강을 통해 사이버한국외대는 현직 번역가가 말하는 번역가의 삶과 요건, 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에서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해당 학부의 전임 교수를 배정해 1:1 맞춤형 진학 상담도 진행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명사특강
<나는 오늘도 번역가를 꿈꾼다! 제2환 : 우리는 이런 번역가를 원한다.>
15년 경력 현장 스템이 말하는 번역가의 요건
2015. 2. 7(토) 오후 1시 사이버관 소강당(303호)



감동 속에 치러진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사이버한국외대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2015년 2월 28일,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뇌암이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 학위를 취득한 영어학부 박기원 동문이 사이버한국외대 최초로 총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학위수여식에 이어 오후 2시에는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식이 진행됐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 선서'에 이어 '스승의 다짐'이 있었다. 처음으로 준비된 교수들의 '스승의 다짐'은 학생을 위한 스승이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 학생 앞에서 약속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모든 것은 '학생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진정란 교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협력처장

사이버한국외대 기획협력처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학교에서 주관하는 입학식 및 졸업식도 모두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린 20대의 청년들만 다니는 대학이 아니고 가정이 있는 중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이므로 모든 행사에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초청해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학교를 자랑할 수 있고 학교 행사를 통해서 바쁜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품위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호응도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봄까지 진행한 행사에는 예상외로 많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중심, 가족·친구와 함께 즐기는 품격 있는 행사로 구성된 것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수들이 지방을 돌며 실시한 찾아가는 서비스-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면대면 접촉 기회를 확대한 것도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싶도록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규모로 승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지만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으로, 교육의 질로 경쟁할 것입니다. 좋은 강의 콘텐츠와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사이버한국외대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의 중심에 학생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Cy™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긴 2015 Cy외대 봄나들이

사이버한국외대의 봄 축제인 '2015 Cy외대 봄나들이'가 5월 9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재학생, 재학생의 가족·친구 등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체험·놀이 프로그램,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당초 4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접수 초반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80명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고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Cy외대

높게 날다

In heaven, he thought,

there should be no limits

Richard Bach, Jonathan Livingston Seagull

사이버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원어민 교수 확보, 콘텐츠 업그레이드 시스템, 학생감동서비스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특별한 장학제도, 타 사이버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으로 차별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The Best가 되는 세상'을 향해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No.1 Cy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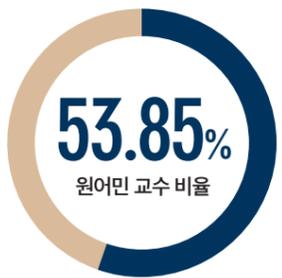
지난 11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어나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8층 규모의 최신 설비를 갖춘
사이버관을 개관했으며,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TESOL 등 특성화된
어학 전공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 45개 언어학과를 가진
세계 3위의 언어 교육기관인 한국외대가 쌓아온
60여 년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재현하고 있다.

외국어 계열 원어민 교수 비율 사이버대학 최고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다 원어민
교수진을 확보, 정규 수업
이외에도 매주 정기적으로 원어민
교수와 회화 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 계열 전임 교수 26명 중
14명(53.85%)이 원어민 교수이다. 특히 영어학부는
전임 교수 13명 중 원어민 교수가 8명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사이버대학 중에서 압도적 1위일 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수 비율
역시 가장 높은 61.54%를 차지하고 있다.



Cy외대 영어학부, 글로벌 시대 선도하는 전문가 양성

사이버한국외대는 고유의 강점인 '외국어와 실용 학문'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국제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한 실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통·번역가, 글로벌 한국어 교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글로벌 지역 전문가 등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영어학부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David Nunan, Rod Ellis 등의 교수진이 제작한
7개의 해외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영어권
나라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단기 어학연수 및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학부에서 매 학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제로 한 영어 토론 포럼은 학생들이 영어권 지역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밖에 통·번역 프레젠테이션, 영문 서류 작성 등
국제 업무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강의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영어학부 원어민 교수의 <스크린 영어> 강좌



2015 Cy외대 봄나들이 행사에 참석한 영어학부 학생 및 가족들

Cy외대 명품 콘텐츠 학생들의 꿈을 키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최정에 교수진의 최우수 품질 교육 콘텐츠로 사이버대학 중에서 최고의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 하위 30%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폐지, 재촬영, 집필 교수 변경 등 파격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먼저 인정한 Cy외대 명품 콘텐츠



사이버한국외대의 콘텐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공모한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서 2005~2007년 3년 연속 최우수(1등)·우수 콘텐츠에 선정되었고, 2009년에도 최우수 콘텐츠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 U러닝 연합회 시행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에서 5개 과목에 대해 최우수 및 우수 e러닝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교과부 및 KERIS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우수상을 받았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7개 과목이 '이러닝 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대학신문 대학 대상'에서 '교육 콘텐츠 우수 대학' 부문 대학 대상도 수상했다. 2014년에는 중국어학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트랙 교과목인 '의료중국어회화II'가 KERIS가 시행하는 콘텐츠 품질인증 내용 심사 및 무결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매 학기 학생 강의 평가를 기반으로 콘텐츠 업그레이드



사이버한국외대는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매 학기말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토대로 하위 5%에 대해 진행해오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2014학년도부터는 하위 30%에 해당하는 교과목까지 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강의 업그레이드 방침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에는 30.1%, 2014학년도 2학기에는 29.6%의 콘텐츠가 폐지·재촬영, 집필 교수 등이 변경됨으로써 콘텐츠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사이버한국외대는 강의 품질 향상과 교수법 개발 및 전파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강의를 개발하는 교강사 및 전임 교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효과적인 강의 운영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2회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법 특강

외국어와 함께 해외 문화를 배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이 국제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외 문화탐방, 단기 어학연수, 해외 대학과의 교류 등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문화'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인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은 방학 중 학부별로 진행되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사이버대학 최고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제공

사이버한국외대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외국어+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른 사이버대학에는 없는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아세안지역경영학부),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넓은 학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외국어 학부에서는 각 언어권별 지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 학부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우수 대학에서의 단기 어학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실습 등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감 있는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어학연수와 해외 한국어 교육실습은 학점으로도 인정받아 학비 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영어학부, 싱가포르 해외 문화탐방

Cy외대 한국어학부,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 1위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한국어학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주관 태국 현지 공립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많은 한국어학부 동문들이 태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활발히 보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주관 2015 태국 공립학교 한국어 교원 선발에서는 최종 선발된 60명 중 사이버한국외대 졸업생이 10명에 달해 최다 동문 선발의 영예도 안았다.

Cy외대 일본어학부, 1:1 맞춤형 한일문화교류 적극 지원



사이버한국외대는 외국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어학부 학생과 일본 도카이대학 한국어 부전공 학생과의 1:1 맞춤형 한일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K-TOUCU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양 대학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과 폭넓은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JK-TOUCU는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학생이라면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4년, 약 40쌍의 매칭이라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5년 4월 제2차 JK-TOUCU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회차 대비 30% 이상 접수자가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Cy외대,
높이 나는
사람들

스페인어학부 조은영 스페인어로 그려낸 또 다른 미래

스페인어학부 14학번인 조은영 씨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옷감의 무늬를 짜고 염색하듯 스페인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또 다른 삶을 아름다운 무늬와 색으로 엮어가고 있다.

글·지근화 | 사진·하지권



원단과 스페인어, 삶의 씨줄과 날줄

대학 시절부터 천연 염색을 좋아했던 조은영 씨는 졸업 후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 그녀가 주로 하는 일은 원단(原緞) 기획과 개발, 직물과 염색 가공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다양한 무늬와 컬러가 어우러지는 원단을 만들어내는 게 그녀의 역할이다. 실로 무늬를 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염색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단 개발은 무수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매력이다. 그녀가 만든 원단은 패션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의류 제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조은영 씨가 텍스타일 디자인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스페인어다.

태초에 축구가 있었다

조은영 씨가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즈음. 우연히 축구에 빠지게 된 그녀에게도 여느 축구팬들이 그렇듯 응원하는 선수와 팀이 생겼다. 지금은 이탈리아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디에고 로페즈'라는 선수와 스페인의 소도시 비야레알이 연고지인 '비야레알 FC'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좋아하는 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그런데 당시 비야레알 FC는 그리 유명한 팀이 아니어서 국내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다. 스페인어를 알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 그때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독학으로 짬짬이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지치고 느슨해지기 마련일 텐데, 저는 오히려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스페인 비야레알로 건너갔어요." 거창한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좋아하는 축구팀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다. 2년이 지나니 동네 사람들과 스페인어 사투리로 대화할 정도가 됐다. 비야레알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녀에게 휴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다.

올리브유를 통한 새로운 도전

귀국 후 조은영 씨는 원래 하던 텍스타일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다. 가끔 스페인어가 매개가 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스페인어를 활용할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에 방문한 스페인어권 클라이언트의 통역을 맡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제가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바이어 통역을 몇 번 하다 보니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좀 더 고급스럽고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무엇보다 학문적 바탕을 견고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녀가 사이버한국외대에 발을 디딘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 인맥이 넓어졌고, 그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스페인에 있는 품질 좋고 저렴한 아이템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게

올리브유였어요. 홈스테이하던 집의 아주머니가 농장에서 막 짜온 올리브유 병뚜껑을 열면 거실까지 알싸한 향기가 가득 퍼지곤 했죠."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조은영 씨는 당장 구글 에스파냐에 들어가 검색을 시작했고, 며칠 동안 다양한 업체와 제품을 훑어봤다. 스페인의 여러 지역 신문도 큰 도움이 됐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이 들 즈음 회사에서 무역 실무 특강이 열렸다. 당시 최대 관심사와 일치했던 터라 그녀는 강의 시간 내내 귀를 쫓긋 세웠다. 실무 경험이 풍부했던 강사는 대기업 상사에서 거래처를 발굴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했다. 그 노하우란 바로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검색하는 거였다. 그 강사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겠어요?"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조은영 씨는 속으로 '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외쳤다.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었다.

스페인어가 가져다준 희망

마침내 이거다 싶은 올리브유를 찾아낸 그녀는 해당 업체와 스페인어로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올해 여름부터 올리브유를 수입해 판매하게 됐다. 소핑몰도 곧 오픈할 예정이다. "올리브유는 마치 와인처럼 지역별로 맛과 향이 달라요. 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올리브유를 소개한다면 제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축구가 좋아 시작한 스페인어가 결국 새로운 사업, 무역의 길로 그녀를 이끈 셈이다. 조은영 씨의 꿈을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낙천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난 그녀는 쇼핑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올해 말 예정인 졸업도 내년으로 늦출 작정이다. 학기가 거듭될수록 커리큘럼이 점점 흥미로워져서 도저히 졸업할 수가 없다고. 졸업이 목표가 아니라 공부가 목표인 만큼 스페인어와의 연애는 당분간 지속할 것 같다. Cy외대



일본어학부 졸업생 최병수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여라

올해 2월 졸업을 했는데도 후배들 멘토 역할을 하느라 재학 중일 때보다 오히려 학교에 얼굴을 더 자주 비친다는 최병수 씨.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대학생활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글·지근화 | 사진·하지권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와 만나다

최병수 씨는 2007년 일본어학부에 입학해 올해 2월 졸업했다. 무려 8년 만이다. 졸업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까닭은 뭘까. 그 지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최병수 씨. 그런데 3학년에 올라가면서 교과서 위주로 진행됐던 학교 수업이 갑자기 수능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만 학업에 흥미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상위권이었던 성적도 점점 떨어졌고, 목표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는데, 제가 찾은 답은 일본어였어요.”

사실 그는 일본어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그가 취미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팝송을 듣다가 영어를 잘하게 된 ‘팝키드’나 1970년대 이탈리아 록음악을 듣다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된 아트록 마니아들처럼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어에 빠져들었다. 2년여 동안 독학하고 나니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제법 체계가 잡혔다. 이미 일본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기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과 의논해 사이버한국외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도 사이버대학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다

“스무 살 무렵은 대체로 정처 없는 시절이죠.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했는데, 일본어에 자만했던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원인이었죠.” 최병수 씨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태만한 학생이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2년을 보낸 후 그는 휴학계를 냈다. 그의 말로는

“군대에 가기 전, 1년 동안 미친 듯이 제대로 한번 놀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마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은 아니다. 공군 의무병에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도 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면 비로소 철이 든다고 했던가. 하지만 3학년 1학기도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찾아온 여름방학. 어느 날 그는 뭔가에 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한다.

“그때 제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었죠. 황금 같은 이십 대의 1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인데,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제가 저를 위해서 해놓은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동안 뭘 한 건가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생각했죠.”

최병수 씨는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는 캠퍼스 생활이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학점교류를 통해 1년 동안 한국외대 일본어과 수업을 들었다. 비로소 대학생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다. 모교인 사이버한국외대에서도 얼마든지 대학생활을 만끽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는 우선 어학연수부터 신청했다. 기나긴 시간, 멀고 먼 길을 배회하다 ‘다시’ 모교에 돌아온 그에게 어학연수는 뒤늦은, 그러나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십 대의 나머지 꿈을 향해

이후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오프라인 수업과 이런저런 학교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했다. 학우(學友)들과 교류하다 보니 배우는 점도 많았다.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간접경험을 통해 경험치가 커졌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졌다. 꿀맛 같은 한 학기가 흘러갔고, 그에게는 이제 졸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학생활의 재미를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던 터라 그대로 졸업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졸업을 연기해 달라 말씀드리고, 1년을 더 다녀죠.” ‘5학년’이 된 최병수 씨는 이제 전과 다른 눈빛을

지닌 사람이 됐다. 전에는 학교에 일이 있을 때 ‘수동적’으로 참여했지만, 이제는 학생회에도 들어가 학우들과 학교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 스스로 돌이켜봐도 참 만족스러웠던 한 해였다. 왜 아니겠는가. 중간 정도였던 학점은 4점대를 넘겨 마무리 지었고,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과 일본어 지도사 수료증도 둘 다 취득했다. 또한, 일본어학부에서 주최한 2015년 스피치 대회에서 대상도 받았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대학생활은 이렇게 화룡점정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요즘 오는 7월에 있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시험 준비에 바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생각하다가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과 일본어 전공을 접목시켜 생각해낸 게 바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당장 취업 전선에 나서지는 않을 생각이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일본의 사회문화와 깊숙이 소통해 볼 예정. 최병수 씨는 “하고 싶은 게 많은 걸 보니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꿈꿀 권리가 있는 이십 대다. 괜찮다. *Byung-soo*



Only 1 Cy외대

사이버한국외대의 변화와 혁신은 오직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이버대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특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 중심의 Need Based 장학제도, 365 학생감동서비스, 그리고 사이버한국외대에만 있는 외국어 학부입니다.

Need Based
장학제도

장학금은 Cy외대 학생의 권리 Need Based 장학제도

“경제적 이유가 학습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이버한국외대가 새로 마련한 Need Based 장학제도의 근본 취지이다. 즉, 사이버한국외대의 Need Based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념의 장학제도이다. 기존 장학제도가 성적 위주의 평가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Need Based 장학제도는 장학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Cy외대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요

사이버한국외대는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학생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희망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에게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문화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60세 이상의 만학도에게는 **시니어장학금**, 전업주부에게는 **전업주부장학금**으로 학업 의욕을 높여주고 있다.

B 어려움을 나누면 기쁨이 커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자녀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자녀에게까지 **면학장학금**으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다. 몸이 불편해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장학금**으로 학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자손, 새터민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C 형설지공을 함께해요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 중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인장학금**으로 형설지공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체의 위탁 학생에게는 **위탁교육장학금**을 지원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학위 취득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D 우리는 외대 가족이에요

한국외대 졸업생 중에서 사이버한국외대에 신·편입한 학생에게는 **한국외대동문장학금**, 사이버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다시 신·편입한 학생에게는 **졸업생재입학장학금**을 지급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외대 가족을 축하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외대, 용인외대부고에 재직 중인 가족이 있으면 **외대복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외에도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 종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진심' 365 학생감동서비스

365 학생감동서비스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학사행정 상담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이러한 진심 어린 서비스에 학생들은 감동으로 답하고 있다.

Cy외대에서는 교수들이 학생을 찾아가다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이버대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교수들과 대면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14년 10월부터 학우들의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학우를 직접 만나러 가는 찾아가는 서비스-“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제 시작이다. 학부별로 지역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의 모든 학우를 찾아가갈 것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술 동아리 출범, 지역 스터디 모임 개설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녁 시간에도 학사행정 상담은 계속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학사·행정·학교생활 등의 문의에 신속히 안내하도록 평일 학사행정 상담 서비스를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연장 변경했다. 일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야간 학사행정 상담 서비스는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주간 시간의 학사행정 상담 건수는 1,200건이며, 야간 학사행정 상담 건수는 760건으로 주간 대비 60% 수준이다. 시간 당 상담 건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야간 시간에 상담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시 기간에 야간 시간 상담 건수가 더 크게 늘어났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Cy외대 명품 서비스

사이버한국외대는 매주 진행되는 토요 오프라인 특강, 주말 스터디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CUFS 라운지에 CUFS Brunch Time과 CUFS Afternoon Tea Time을 마련하고 있다. CUFS 라운지에 삼삼오오 모여 학생 지원 부서에서 정성껏 준비한 차와 간식을 나누는 모습에 사이버한국외대의 학생을 향한 마음이 나타난다.



다양한 외국어학부

글로벌 인재 산실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Cy외대

사이버대학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에서는 다른 사이버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5억 인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아세안 지역 언어는 사이버대학 중에서 오직 사이버한국외대에서만 배울 수 있다.

사이버대학 유일, 정열의 언어 스페인어학부

2013년 창과 된 스페인어학부는 사이버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버한국외대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부이다. 최근 스페인어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 지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어학부는 스페인어 공부와 더불어 스페인 문화, 라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춤을 통해 스페인과 라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플라멩코 특강과 살사 특강을 무료로 진행해 스페인어학부는 물론이고 타 학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들었다.



스페인어학부 스페인 문화탐방

대륙의 기상을 배우는 중국어학부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사이버한국외대 중국어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지역별, 연령대별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정보 공유가 매우 활발한 사이버한국외대 중국어학부는 타 사이버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콘텐츠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학부 졸업생들은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자격증과 중국어 번역사 자격증, 중국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어학부 영남권 학우 오프라인 모임

기회의 땅을 품는 아세안지역경영학부

사이버한국외대가 아세안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세안지역경영학부를 창과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에서는 비즈니스 영어는 물론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아세안 국가의 언어를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지역 전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다.



세계인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Cy외대 변혁의 중심 조장연 부총장, 직업관을 이야기하다

Profession & Calling

학생이 원하는 가치 명제를 찾아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ession', 더 나아가 가족과 동료,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는 'Calling'으로 진정한 일의 의미를 찾아야

이십여 년 전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시절, 일본에서 열린 회의 참석차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다. 몇몇 지인들과 골프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캐디에게 "재미있어요?"라며 말을 건네니 돌아온 답은 뜻밖에도 "누가 재미있어서 일하나요. 살기 위해서 하죠."였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며칠 후, 회의가 끝나고 일본 골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초로의 캐디가 라운딩을 도왔다. 그녀는 공을 깨끗이 닦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며, 내내 즐거운 모습이였다. 동일한 질문을 하니 하는 일이 재미있단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 그녀는 한국의 캐디와 분명히 하는 일은 같았지만,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일하는 것이 전자의 경우처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면 그 일에는 압박감과 지루함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캐디와 같이 스스로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한다면 일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
미국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대리이론(agency theory)은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고 돈(보상)을 좋아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기업주는 조직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근로자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최대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고 최대한 적은 일을 하는 곳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찾는다. 이들에게 일은 'Job',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Job'과는 다른 'Profession'이 있다. 자신의 일을 'Profession'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개발한다. 이들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보다 더욱 의미 있는 진정한 직업의식은 'Calling'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눔으로써 내 고객, 내 동료의 삶이 윤택해지고, 소속된 조직에 공헌하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직이요 진정한 직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대학' 위한 전력투구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2014년 8월, 우리 사이버한국외대에 부임하며 모든 구성원이 최소 'Job'으로 직업을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내 본분이라 여겼다. 지난 시간은 각자가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능력의 나눔을 실천하며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감동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존경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투구한 지난 9개월이라 할 수 있겠다. 덕분에인지 때문인지 나는 '검투사'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우리 대학은 변화했다.

'내가 The Best가 되는 세상'

'내가 The Best가 되는 세상'은 2015학년도 2학기 우리 대학의 슬로건이다. 모든 구성원이 소명을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가치 명제를 찾아 최고의 명품 교육 서비스, 학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실천한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며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하고자 했다. 학위수여식, 오리엔테이션, 가을 축제 쿠페스타, 봄나들이 등 학교의 큰 행사를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는 본질에 맞게 분위기를 바꾸어 학생과 학생 가족 모두를 위한 축제로 만들었다. 또, 학사행정 상담 서비스 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자신의 일을 'Profession'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의미 있는 진정한 직업의식은 'Calling'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눔으로써 내 고객, 내 동료의 삶이 윤택해지고, 소속된 조직에 공헌하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직이요 진정한 직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무엇보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매 학기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적극 반영하여 학기당 하위 30%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5%에 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것에 비해 파격적 감행이다.

학생들에게서 존경받는 'Calling'

그 결과 2015학년도 1학기 학생 모집에서는 2014학년도 동기 대비 입학생이 23%나 증가했으며, 이 중 재입학 등록자 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의 우수 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타 사이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 출신 입학생이나 본교를 졸업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다시 입학한 예도 상당하다. 이 모든 결과는 주말과 평일 저녁시간을 반납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존경받는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존경받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대학이 목표하는 '존경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먹고 살기 위한 'Job'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가치 명제를 찾아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ession', 더 나아가 가족과 동료, 그리고 학생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Calling'으로 진정한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나부터 노력하고자 한다. 최고의 서비스에 기반한 존경받는 개개인이 뭉친 사이버한국외대는 조만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는 미래를 여는 대학이 되리라 확신한다. *cy*



사이버한국외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명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사진은 사이버한국외대 전자도서관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

사이버한국외대는 2015학년도 1학기에 사이버대학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아세안지역경영학부를 비롯해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금융회계학과와 공공관리학과를 신설,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

세계 시장의 잠재적 성장 엔진,
아세안 지역 전문가 양성



447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에서 쏟아지는 풍부한 천연자원, 6억 인구의 노동력, 세계 시장의 잠재적 성장 엔진, 아세안.

실제로 2013년 우리나라 총 무역 흑자 규모 440억 달러의 65%에 달하는 287억 달러의 흑자를 안겨준 아세안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아세안지역경영학부를 2015학년도 1학기, 사이버대학 최초로 신설, 글로벌 지역 전문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의 언어, 사회,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심층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의 땅, 아세안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의 재학생 중 상당수는 재직 중인 회사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고자 입학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 지원자 중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도 전체 지원자의 3.5%를 차지했다.

금융회계학과

사이버한국외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교육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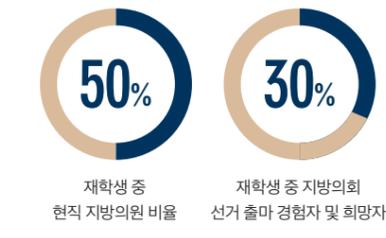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난해 12월,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관련 프로그램 등 회계·세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금융과 회계학과를 융합하다

금융과 회계 분야의 '실무 적합형 단계별 교육'과 '수준별 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과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유일무이한 금융과 회계 분야의 융합 학부다. 금융회계학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금융·회계 교수진과 실무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금융과정과 회계·세무 과정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VUS(value-upgrade service)-'맞춤형 학업 설계' 구축으로 학습자 개인별 수준진단을 통해 국내·국제 자격증을 단계별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과는 국민 전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형성과 금융 취약 계층의 재무설계를 지도할 수 있는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했다.

공공관리학과

재학생 절반은 현직 지방의원
실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



국내 유일의 지방의정 전공 학위 과정인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과는 행정 감사 실무, 지방예산 회계 분석 실무, 선거법의 이해와 적용 등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회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직 공무원, 전직 지방의원 등이 사례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과 재학생 절반이 현직 지방의원이고, 재학생의 약 30%는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출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가 공공기관의 관리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최초로 지방의정 전공을 학위과정으로 만들다

사이버한국외대의 공공관리학과 신설로 지방의원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의 역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물론 교육과정도 없기 때문에 대학원을 나온 지방의원도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사이버한국외대의 공공관리학과 신설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만든 정규 4년제 대학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1차 2015년 6월 1일(월) ~ 2015년 7월 9일(목) 2차 2015년 7월 23일(목) ~ 2015년 8월 13일(목)
모집학부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아세안지역경영학부(신설), 금융회계학과(신설), 공공관리학과(신설)
모집정원	2,296명 일반전형 신·편입생 570명 특별전형 신·편입생 1,726명
지원대상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편입학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1년 이상 수료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http://www.cufs.ac.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2173-2580 이메일 ipsi@cufs.ac.kr 카카오톡 ID: @cuf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TESOL과 실용영어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TESOL 단일 전공으로, 5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졸업 시, TESOL 석사학위와 더불어 TESOL Certificate가 수여됩니다.

전형일정	2015년 6월 1일(월) ~ 2015년 6월 24일(수)
모집정원	정원 내 0명, 정원 외 0명
지원대상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http://grad.cufs.ac.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2173-2290 이메일 kyohak@cufs.ac.kr 카카오톡ID: @cufstesol